

BOOK REVIEW

서 평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New Issues in Medical Ethics

Jay Hollman 역음 / 박재형 외 옮김 / 예영커뮤니케이션 / 1997

조덕영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대 과학에 편승하여 늘 발빠르게 변신해온 학문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변신 아래서도 윤리는 늘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의 빠른 발전은 의료 문제들에 있어 새로운 결단을 날로 증가시켜 왔다. 1975년만 해도 에이즈는 보고되지도 않았고 유전학적 진단은 대부분 임상적이었지 분자생물학적인 추적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최신 의학 발전에 따라 생겨난 윤리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룬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 그렇다면 과학과 지식도 홀로 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주신 원리를 따라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나 열려진 판도라 상자 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멀찌감치 하나님을 달아났다. 한번 달아나 버린 사람의 자유의지는 상자로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본질(text)을 잃어버리면 상황(context)은 늘 유동적이 된다. 여기서 세계관의 차이가 발생한다.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인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 세계관 사이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의료윤리에 있어서도 세상과 기독교는 분명 다른 관점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이 책은 ‘기독교적 의료윤리의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한다. 윤리 문제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화관과 세계관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의료윤리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는 성경적 틀은 무엇일까? 그런 틀이 있기는 한 것인가.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윤리관이란 성서적 윤리관이다. 여기에 조셉 플레처가 말한 상황윤리(situational ethics) 아래에서 어떻게 기독교 윤리가 작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즉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context)을 어떻게 성경적 관점(text)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생명의료 윤리의 위기에 대하여 미국 기독교사회·치과의사회에 속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담고 있다.

세속 윤리와의 문화 전쟁 아래에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공공에 적용시키고 흡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성서적 진리를 진지하고 은밀하면서도 비폭력적으로 세속 사회에 요구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독자로 하여금 과학적인 의료 자료를 이해하며 성경적인 계시를 종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제 문제에 대해 기독교 윤리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저자들은 접근방법으로서 과학적 진리가 먼저 나오고 그후 주제에 대한 성서적 견해에 접근방식을 취했다. 신학도나 목회자가 아닌 자연과학자들인 의료인들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성서적 관점에 서려면 성서적 관점을 먼저 취하고 상황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본서는 윤리를 다루기 위한 전제로서 개인 윤리와 법적 윤리

와 문화 윤리라는 세 가지 차원을 검토한다. 개인 윤리가 높다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최소화할 수 있다. 법적 윤리는 사회를 규제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있다. 문화 윤리는 문화와 긴밀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윤리이다. 그리고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높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윤리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체계뿐이다. 하나는 하나님과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기초한 세속론이다. 여기서 저자들은 성서의 전제는 옳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기독교 윤리 문제를 다루게 된다. 세속적인 전제가 반드시 진리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세속적인 전제가 공격받고 있는 징후는 여러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 의사이며 분자생물학자인 마이클 덴턴¹⁾과 그밖의 세속주의 학자들은 진화론에 대해 심각한 과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진화론에 대한 최신 이론의 문제점”(the difficulties with the current theory of evolution)이란 글에서 “진화론은 정상적인 구조 속에서는 결코 적절히 설명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진화의 무작위성과 맹목적인 기원에 대한 견해는 세속적 세계관에는 필수적이다. 진화론은 상당 부분 현대철학에도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현대적인 진화론의 개념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세속적 가정들, 특히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며 그가 성서에서 윤리적 표준을 주셨다면 새로운 의학기술 때문에 생긴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서는 표준이 될 수 있다. 거짓된 전제조건에 근거한 윤리적 견해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다루려는 일차적 의도는 신앙이나 전제조건들에

1) Denton. M., *Evolution: A Theory in Crisis*(Bethesda, MD: Adler & Adler 1986).

관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의학기술에 대한 것과 이 기술적 발전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런 미묘한 의료윤리의 제 문제를 폭넓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은 전문가의 집필 형태로 나타나 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집단 의견과 전문가적 견해가 섞여 있다. 이런 면에서 통합된 기독교적 관점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자들은 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그 현상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때로 개인의 의견보다는 미국 기독의사·치과의사회의 견해를 소개한다. 이만큼 의료윤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본서는 새로운 의료윤리와 관련된 주제를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크게 세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출생시의 윤리와 생활 중의 윤리와 임종시의 윤리가 그것이다. 생명 탄생을 전후한 요람 전후의 윤리로부터 무덤까지의 윤리라 할 수 있다.

본서는 먼저 출생시 윤리로서 생식에 관련된 생명공학의 윤리와 산전 진단과 치료 윤리, 그리고 소아 에이즈 환자와 태아조직 연구와 이식 문제를 다룬다.

출생 전후의 윤리로부터 우리들은 기독 의료윤리와 세속의 윤리가 너무도 큰 차이를 가졌음을 쉽게 알게 된다. 생식기법에 있어 미국의 기독의사·치과의사회와 가톨릭교회와 미국 불임학회 그리고 미국법은 분명 세계관적 차이만큼이나 그 윤리적 입장이 다르다. 미국 법과 미 불임학회는 대부분의 생식기법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입장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가톨릭교회는 보다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다. 여기에 기독의사·치과의사회는 성경적 입장에서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기독의사·치과의사회의 경우 아내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가 결합됨으로써 발생한 수태는 성경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며, 인간의

생명은 수태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보호하시려고 의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유전학적인 후손에 대하여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을 갖도록 주장하신다. 미국 기독의사·치과의사회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생식기법이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그에 대한 도덕적인 정밀한 검증이 계속 필요하다고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의사로서의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만 한다고 인식한다. 불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은 이런 기술들이 사용되는 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로부터도 지도와 상담을 받도록 격려해야 한다.

가톨릭교회의 경우 보다 완강한 성서적 원리에 따르는 듯하다. 가톨릭교회에서 생식이란 결혼생활을 성적 표현이나 부부간의 애정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가톨릭교회의 견해로는 부부간의 행위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치성(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진전시킴)과 생식성이다. 인간생활에 관하여 - 인간은 처음 존재하는 순간부터 인격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일단 수정되는 과정이 완전하다면 사람의 인격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미국 불임학회의 경우 미국 불임학회에 의한 윤리적인 고찰의 기초가 매우 광범위하지만 태아에 대한 견해는 1990년 6월 11일에 발행된 미국 불임학회지 부록 53권 188페이지의 “새로운 생식기법에 대한 윤리적 고찰”에 잘 요약되어 있다. “배아에 대한 우리의 명백한 도덕적인 의무보다는 다른 도덕적인 책임, 예를 들어 불임부부나 임신 여성들을 관리하는 데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발전시키는 책임이 앞선다는 점을 인식하는 바이다”는 언급에서 그 분명한 입장이 드러난다. 생식기법에 대한 이런 각 입장 차이는 다른 의료윤리에 있어서도 비슷한 적용을 이루게 된다.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낙태 문제는 생명옹호론 대 선택중시론으

로 갈라지게 된다. 이 문제도 간단하지는 않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적 관점에서 쉽게 생명옹호론에 설 수는 있다.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부부에게 있어서도 윤리적 곤경이 오는 경우는 있다. 임신중 태아 기형을 진단하여 그 태아가 분만시나 분만후 수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의 기형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진단된 경우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산모에게 상당한 정서적 짐이 될 수 있다. 또한 태아 기형이나 비정상적인 착상이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도 물론 일차적 치료지침은 모체의 질환을 치료하면서 태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부부에게 있어 낙태를 반대하는 경우 정서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표면적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더라도 실제적 상황이 닥쳤을 때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산에 관한 기독교사·치과의사회는 선언문에서 분명 낙태수술을 반대하고 이를 대체할 방법의 개발과 이용을 권장한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성경과 역사적 기독교 전통과 인간의 기본적 신성과 존엄 모두에서 생명의 가치는 분명 삶의 질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충분한 조언과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부는 가족, 의사, 친구, 성직자 등과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로 80년대 새롭게 대두된 소아 에이즈 환자의 문제를 다룬다. 소아 에이즈는 90% 이상이 부모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한 죄 없는 희생자이다. 어머니로부터 태아로의 전파는 어떤 예방적인 조치로 최소화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무책임한 어머니들 때문에 적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저자는 태아조직의 연구와 이식에 있어서도 그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용납하실 것인지 심각하게 질문을 던진다.

둘째, 생활 중의 윤리로서는 먼저 성병, 성생활, 성교육 문제를 다

루며 기분전환 약물의 사용과 에이즈 문제, 과학과 정치 그리고 공중보건, 유전학적 진단, 신앙과 건강, 해야 할 것과 고려해야 할 모든 것을 다룬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관점과 일반 윤리적인 관점이 주로 제시된다. 성서적 관점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공중보건에 최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과 정치 간에 최선의 역할분담을 도모하고자 모색한 “과학, 정치와 공중보건”에서는 생활 중의 의료윤리에 있어 과학과 정치와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새롭게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느껴진다. 그리고 그런 세속적 질서 속에서도 저자들은 ‘인본주의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의료기술이 급진전되고 있는 현실 앞에 생활 중의 의료윤리에 있어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고전 1:20절 이하)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셋째로 임종시의 윤리로 노화와 죽음의 문제, 의사 조력 사망, 즉 안락사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의 문제를 다룬다.

과학이나 성경 모두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확증한다. 죽음의 의미를 과학을 통해 발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성경적 진리를 모두 이해한 그리스도인만이 인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생명의 지속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속과 섬김의 지속은 더욱 중요하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죄악된 가나안 땅의 거민을 다루는 데 있어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생명관을 뛰어넘으신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단

순한 의료윤리적 치료가 왜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평가(評者)는 안락사 찬성론자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의사들은 과연 무연고(無緣故) 식물인간일지라도 자신의 부담 아래 적극적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의료윤리를 지켜왔는가 하는 것이다. 의료윤리는 사실 경제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의료의 도움과 신세를 지게 될 때에 먼저 의료윤리에 대해 토론한 다음 치료를 받는 일은 없다. 의료윤리에 있어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일이란 늘 진단과 치료 후 자신의 입장과 반하는 미묘한 윤리적 상황과 부딪히게 될 때에 조금 당황할 뿐이다. 이런 것들의 우리의 의료윤리 현실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미국 기독교사나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책은 아니다. 미 기독교사·치과의사회에 속한 전문의 중의 일부인 글쓴이와 위은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이다. 다양한 기독교 의료 전문인인 자신들의 기독교적 신념을 다룬 책이다. 이것이 이 책의 한계라면 한계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양한 전문인들이 각자의 전공에 따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듯하였으나 실은 과잉진료나 진료기피,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따른 윤리의 문제 등 주로 세속 의사들이 쉽게 범하는, 민감하면서도 치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자주 간과(看過)되어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만만찮은 문제거리이다. 그러나 책 제목에서 보듯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만을 다룬다는 한계가 이 책에는 있는 듯하다. 이 책의 논점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따른 의료윤리인 것이다. 그것이 보다 의료윤리의 핵심적 문제라 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들을 깊숙이 다루지 못하고 비껴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더라도 과잉진료나 진료기피, 의료인의

의료사고의 문제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기독교 의료윤리에 있어서도 핵심을 떠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에 있어 이런 제(諸) 윤리의 핵심문제들은 경제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누구보다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의료인들에게조차 돈 문제는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다. 인간 게놈(genome)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이 책의 한 저자는 밝히고 있다. 저자는 윤리가 경제의 문제를 떠나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평자가 지적하는 문제들이 좀더 노골적으로라도 이 책에서 다루어졌더라면 기독교 의료윤리의 본질에 쉽게 다가설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진다. 그 부분이 아쉽다.

아무튼 기독교 의료윤리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성서적 윤리를 찾고자 고민하고 세속에 접합하고자 시도한 기독교 의료인들의 열심에 서평자의 입장에서 박수를 보낸다. 세속적 인도주의 세계관이 만들어 가는 법적, 사회적 윤리체제 아래에서 이런 기독교 의료인들의 노력은 다른 모든 분야의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당히 전문적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저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제 과학의 진보는 때로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을 듯 다가오고 있다. 과거 인류는 결코 달 위를 걸지 못할 것이라고 고집했던 경건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거뜬하게 달 위를 걸었다. 과학자들의 상상력과 추진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단지 우리의 희망사항이라고 느껴졌던 일들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의료인들에게도 앞으로 계속 많은 도전과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노력은 단지 부분적 효과만을 지닌다는 것이다. 새로운 의료윤리의 문

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 과학에는 엄연히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점을 익히 잘 알고 계신 분이 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학적 한계 안에서 노출되는 윤리의 한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더욱 지켜보고 계신지도 모른다. 즉 목회자로서 필자의 견해는 하나님은 과학의 진보나 한계보다는 윤리의 한계에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혼돈과 우려도 일순간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젠가 우리는 새로운 저 하늘나라에서 고통을 완전히 이기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 조덕영 ■

1956년 출생. 충북대, 숭실대(M.Sc.), 성결교신학대학원(M.div.), 평택대신학대학원(Th.M.)에서 수학. 한국창조과학회 대표간사(1985-1998)와 한국문학연구회 충북지부 사무국장 역임. 강남대, 명지대, 안양대 등에서 창조과학 교수사역. 현재 참기쁜교회 담임목사. 저서에 「기독교와 과학」, 「UFO와 신비주의」, 「성서와 과학자들」, 「과학으로 푸는 창조의 비밀」, 「과학으로 하는 성경공부, 과학으로 하는 전도」 외 다수 논문.